

초등학교 음악 만들기 활동으로서 음악개념 중심의 노랫말 바꾸기

Changing Lyrics Centered on Musical Concepts as a Music-Making Activity in Elementary School

신 은 지*

Eunjee Shin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초등학교 3~4학년 음악 교과서의 노랫말 바꾸기 활동을 음악개념 중심으로 전개하는 수업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먼저, 음악 만들기의 정의에 나타난 교사의 역할, 음악과 언어의 연관성에서의 노랫말 바꾸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후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노랫말 바꾸기에 포함되는 필수적 음악개념(악센트, 리듬)과 제재곡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선택적 음악개념(형식, 조성 등)이 노랫말의 내용적, 언어적 특징과 결부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노랫말 바꾸기가 포괄적 음악성 함양과 성악작품 만들기로 연계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2015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4음01-03]에 관한 세부적인 예시로서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노랫말 바꾸기, 음악 만들기, 음악개념, 초등학교 3~4학년 음악 교과서, 성취기준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ed to develop a teaching method for changing lyrics based on musical concepts in the current elementary music textbooks for 3rd and 4th grades. The contents of song lyrics activity in the role of teachers in the definition of music making and in the connection between music and language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e textbooks analysis, various methods were suggested in which the essential musical concepts (accent, rhythm) included in all lyrics change and the selective musical concepts (e.g. form, key) characteristic of the song are linked to the content and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the lyrics. This study confirmed that song lyrics activity can be linked to cultivating Comprehensive Musicianship and making vocal works. Also this article will be a detailed lesson example of the achievement standard [4um01-03] presented in the 2015 revised music curriculum.

Key words: changing lyrics, composition, musical concepts, teacher expertise, grade 3~4 textbooks of elementary school music, achievement standards

* Corresponding author, E-mail: eunjee5258@gmail.com

Instructor, Konkuk University, 120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Korea

I. 서론

일반적으로 예술(藝術)을 의미하는 단어(Ars(라), Art(영), Kunst(독) 등)는 모두 특수한 기술이나 숙련된 기교로 자연물과 대립되는 인공적인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Jun, 2014). 즉, 좋은 예술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 상태를 넘어서서 떠오른 영감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개념적 지식 및 숙련된 기술을 겸비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도 음악을 다룰 수 있는 기술로서 음악이론과 음악적 개념의 이해를 통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소리와는 다른 실제 음악으로 구현하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사 자신이 음악 만들기를 위해 익혀야 하는 화성법, 대위법 등의 이론에 능숙하지 못하며(Hong, 2012), 학교 교육과정에서 작곡을 공부하지 않은 경우 음악 만들기 수업을 어려워하고 있다고 밝혔다(Berkley, 2004). 이러한 교사의 실기경험 부족은 학교에서 음악 만들기 수업의 비중을 낮추거나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음악 만들기 수업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조사한 심층면담에서 초등 교사들은 그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음악 만들기 수업을 실천하는 것에는 소극적이라고 밝혔다(Chung, 2019). 초등학교와 중학교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또 다른 면담과 설문에서도 전체 음악수업 중에서 음악 만들기의 비중이 가장 적었으며, 음악 만들기는 아예 하지 않거나, 많은 경우 별도의 수업진행 없이 수행평가 등의 과제 형태로만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다(Park, 2010; Hong, 2012). 이는 음악 만들기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교사가 수업에 필요한 음악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음악 만들기 과정에서 학생들의 상상력을 소리로 표현하는 것 뿐 아니라 실제 음악개념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며(Webster, 1990), 음악개념의 학습이 이론만으로 구성되는 것보다 음악활동을 통해 습득되어야 한다(Rim et al., 2010)는 주장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음악 만들기 수업에서 음악개념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최근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과서의 음악 만들기 활동을 분석한 한 연구는 공통적으로 노랫말과 관련된 유형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Shin, 2019). 특히 초등학교 3~4학년의 교과서에 수록된 음악 만들기 유형에서는 2015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4음01-03]에 해당하는 ‘제재곡의 노랫말을 바꾸거나 노랫말에 맞는 말붙임새로 만든다’에 관련한 활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Kim, 2018; Ham, 2018; Yu & Kwon 2020). 신혜경(Shin, 2019)은 교과서의 음악 만들기 활동에 노랫말과 말붙임새 관련 활동이 높은 비율로 구성된 이유를 해당 활동이 음악 만들기의

기초 수준에 해당하고, 실제 수업 적용에 편리하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실제로 한 초등교사는 음악 만들기 수업 관련 심층면담에서 학생들이 음악 만들기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노랫말 바꾸기나 간단한 리듬 짓기 외의 음악 만들기 수업을 기피한다고 답변하였다(Chung, 2019). 이는 노랫말 바꾸기가 학생별 음악적 수준(독보력, 음악개념 이해 등)의 개인차와 같은 음악 만들기 수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노랫말 관련 음악 만들기 활동이 비음악적인 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초등학교 3~4학년 음악 교과서의 음악 만들기 활동을 분석한 연구들은 노랫말 관련 음악 만들기 활동의 주된 소재가 ‘소리’가 아닌 ‘노랫말’에 집중되어 있으며(Ham, 2018), 노랫말과 관련한 음악적인 내용은 배제된 채 단순히 노랫말의 의미 전달을 다루는 음악 외적 활동(Kim, 2018)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제재곡의 노랫말을 바꾸는 활동이 음악적이기보다는 언어적인 측면이 강조된 활동이 되어 과연 해당 활동을 음악 만들기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Yu & Kwon 2020)을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말붙임새에 관한 연구는 국악 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예컨대 말붙임새 관련 학습에 기본적인 지도 방향을 제시하고자 말붙임새와 장단(Byun, 2011), 말붙임새와 박자(Kim, 2013) 간의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국악에 노랫말을 붙이는 원리를 찾으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 이러한 원리를 기반으로 국악교육의 말붙임새 관련 활동이 단순한 노랫말 바꾸기가 되는 것을 지양하고 말붙임새에 따라 리듬과 속도, 장단 등을 변화시키는 심화 수준의 음악 만들기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Park, 2015). 또, 장단에 따라 노랫말을 붙이는 원리에 중점을 두고 초등 국악교육을 위한 말붙임새 음악 만들기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한 수업 설계 및 실연 연구(Park, 2014)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모두 말붙임새 학습에서 본래 국악 성악곡의 음악과 노랫말 사이에 나타나는 음악적 원리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은 국악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모든 노랫말 바꾸기 수업에서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 초등학교 3~4학년의 노랫말 바꾸기 활동과 그 지도내용을 분석하고, 해당 활동에서 어떤 음악개념¹⁾을 고려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한다. 더불어 그 음악개념들이 지닌 음악적 원리에 적합하게 노랫말을 바꾸는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연구범위는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 중 동아출판(주)(Seok et al., 2018), (주)비상교육(Cho et al., 2018), (주)금성 출판사(Kim et al., 2018)

1)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음악개념의 범위는 초등학교 3~4학년 수준의 것으로 한정한다.

3종을 선정하여 국악의 말붙임새를 제외한 노랫말 바꾸기 활동을 분석하였다. 교과서의 선정은 김서경(Kim, 2018)의 연구를 바탕으로 음악 만들기 중심 단원과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에서 통합으로 나타난 음악 만들기 활동의 빈도수가 높은 상위 3종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음악 만들기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에게 노랫말 바꾸기 활동이 음악개념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는 방법적 접근의 단면을 제시해주고, 비음악적 요소의 활용으로 음악교과가 의도하는 음악 역량을 함께 기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음악 만들기 활동의 특징과 교사의 역할

선행연구에 제시된 음악 만들기의 개념 정의들을 살펴보면 음악 만들기 활동의 두 가지의 특징을 알 수 있다<Table 1>. 첫 번째 특징은 음악 만들기 과정에 실제적인 음악적 기술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음악적 지식과 기능을 습득 및 활용하는 것으로 리듬, 가락과 같은 다양한 음악적 개념들과 형식, 구조 등을 경험하며 익히고,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특징은 음악적인 사고뿐 아니라 비음악적인 사고까지 모두 포함하며,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재하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은 음악 만들기 과정에서 실제 음악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해왔다. 음악 만들기를 포함하는 다양한 음악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적 사고 과정을 다룬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model of creative thinking in music)은 음악을 본질적으로 구성하는 개념에 대한 지식 이해(conceptual understanding)와 복잡한 음악 작업에 해당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craftsmanship)을 포함하고 있다(Webster, 1990). 또한 최은식과 신혜경(Choi & Shin, 2016)이 음악 창의성 신장을 위해 수업모형을 개발한 연구에서도 학습자가 음악적 아이디어를 재구성 및 표현할 때 음악 요소나 개념을 활용하여 학습자 내면의 아이디어를 연주 또는 창작과 같은 음악활동으로 구체화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들은 음악 만들기를 포괄하는 음악에서의 창의적 사고과정에는 음악적 개념들의 이해와 활용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음악 만들기 정의의 첫 번째 특징을 뒷받침한다.

<Table 1> Definitions of music composition

Author	Definitions of music composition ²⁾
Seung et al., 2013	'Making Music' is a comprehensive activity that consolidates musical materials to <i>form creativity and novel results</i> .
Choi & Oh, 2016	In a music class, the improvisation or composition encourages students to <i>experience a creative activity</i> as well as promotes them to understand the notion of music .
Kim, 2018	Music composition refers to the integrative activity consolidating cumulatively learned musical concepts and the <i>creative thinking of students</i> .
Chung, 2019	Making music has educational significance in the comprehensive dimension of acquiring musical knowledge and skills , as well as active application and expression of musical ideas, and <i>discovery of creative potential</i> .

위에서 살펴본 음악 만들기의 정의가 지닌 두 가지 특징은 음악 만들기 수업에서 수행되는 다음과 같은 교사의 역할을 시사한다. 먼저 교사는 음악 만들기를 지도하기 위해 음악을 만드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이론과 기술을 겸비하고 학습상황과 학생의 수준에 맞는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교사 자신이 작곡자로서 음악적 능력을 지녀야 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학생의 음악 만들기 과정 또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Berkley, 2001). 즉, 교사는 음악 만들기 수업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가 음악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인 음악적 맥락을 제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음악을 만들 수 있게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Chung, 2019). Odena와 Welch(2009)는 4년간 6명의 교사에게서 얻은 다양한 자료(영상 추출 인터뷰 기술, 음악 진로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음악교사가 다양한 음악 스타일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 창작물을 평가(Pilsbury & Alston, 1996)하고 학생들의 작곡 과정에 참여하려면 적절한 작곡 경험이 필요하다(Berkley, 2001)고 밝혔다. 이와 같이 노랫말 바꾸기 수업에서 필요한 실제적 음악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음악분석을 통해 제재곡에 담긴 음악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해야 하며, 이를 노랫말과 유기적으로 연관 지은 다양한 예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교사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수업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교사의 수업방식, 특성 및 교사가 만드는 수업 분위기가 학생의 창의성 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Kim, 2015). 학생들의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환경은 실생활 맥락,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 허용적 분위기, 교사-학생 및

2) 음악 만들기 활동의 첫 번째 특징은 굵은 글씨로, 두 번째 특징은 기울임체와 밑줄을 그어 표시했다.

학생-학생 간의 상호작용, 긍정적인 피드백(Cho, 2013)으로 구성된다. 이 구성 개념들을 음악 만들기 수업환경에 대입해보면,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관심을 가지고 듣는 장르의 음악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의 음악 만들기 과정 전반을 이해하고 그에 관하여 의사소통 할 때 허용적인 분위기와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한다. 이를 바탕으로 노랫말 바꾸기 수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교사가 제시된 주제어에 관하여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과 관심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는 학생들이 노랫말에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음악과 결부된 노랫말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언어의 변화같은 뜻을 갖지만 다른 글자 수를 지닌 단어로 바꾸거나 문장의 구조를 변화하는 등-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허용적인 환경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2. 음악에서의 언어 사용

음악은 피타고라스, 플라톤 시대부터 현재까지 언어 또는 기호와 연결하여 생각되어 왔으며, 19세기 이후의 음악사학에서는 음악과 언어의 기원과 발전을 나란히 하며, 음악과 언어의 역사를 결부시켜 논하고 있다(Moon, 1990). 또한 작곡가의 모국어가 지닌 운율이 음악작품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Ko & Lee, 2018), 모국어의 음조와 지속 시간이 음악의 멜로디와 리듬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Zhang et al., 2020)는 선행연구 결과 역시 음악과 언어의 연관성을 시사한다. 음악의 본질을 경험하기에 적합한 교수 방법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칼 오르프(Carl Orff)의 음악교육(Rim et al., 2010)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르프의 음악 교수방법을 이론과 실제로 설명하는 자료인 오르프 숄베르크(Rim et al., 2010)는 모국어와 속담, 민요 등의 문화적 개념이 담긴 언어를 소재로 음악을 가르치고 리듬과 선율 패턴의 근간으로 삼는다(Shamrock, 1986). 오르프는 음악교육 현장에서 언어를 리듬적(rhythmic) 그리고 극적(dramatic)인 맥락에서 사용하였다(Shamrock, 1986). 특히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언어와 움직임은 음악적 경험의 첫 발판으로 사용하였다(Cary, 2012). 이와 같이 오르프가 음악교육에서 언어를 사용한 리듬학습을 말리듬(speech)이라고 일컫는다. 말리듬을 이용한 음악학습은 악기의 구비나 숙련된 악기연주 실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공간적 제약이 없고 학습자에게 친숙한 학습매체로서 학습의 도입개념으로 적합하다(Ko & Lee, 2018). 이러한 말리듬을 이용하여 쉽고 간단한 리듬의 학습을 시작하여 혼합 박자를 다루는 복잡하고 어려운 난이도의 학습까지 접할 수 있다(Shamrock, 1986). 뿐만 아니라 음색, 짜임새, 구조 등과 같은 다양한

음악적 개념들 역시 말하기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Ko & Lee, 2018).

또 언어는 노랫말의 형태로 음악과 함께 나타난다. 가곡이나 동요와 같은 성악 음악의 노랫말은 단순히 그 내용과 의미에 따라 교육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Yun, 2018; Kim, 2019). 그러나 이는 노랫말이 지니는 음악 외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본 장에서는 음악적 특징과 노랫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부되어 나타나는지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김순빈(Kim, 2011)은 언어를 대표하는 학문인 문학과 음악이 긴밀하게 결합하여 이루어진 음악 형태인 19세기 예술가곡(Lied) 중 리스트의 한 작품에 나타난 음악과 노랫말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그는 에버렛(Walter Everett, 1954~)의 쉐커식 분석으로 시와 연관된 음악적 특징을 파악하고, 즈비카우스키(Zbikowski, L., 2002)의 개념적 혼성 이론을 이용하여 앞서 밝힌 음악적 특징이 시적 내용과 연결되는 ‘의미’를 읽어내는 분석모델을 만들어 시와 음악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다. 화성진행과 종지, 선율의 방향이나 형태 등의 음악적 특징과 시의 내용이 어떻게 결부 되어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보다 생생한 극적 내러티브를 구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경고(“혀를 조심하라”)와 지적(“나쁜 말이 뱉어졌구나”)의 노랫말 내용을 화성의 미해결 또는 조성적 모호함, 급작스러운 음악적 흐름의 단절 등과 결부시켜 청자가 불안한 감정의 고조와 단절감 같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단어 혹은 한 소절의 시와 음악이 결부되는 미시적 연관성 뿐 아니라 음악의 전체구조에도 노랫말의 내용이 영향을 미친다. Na(2011)는 바흐의 《D장조 마그니피카트》에서 음악작품의 거시적인 구조에 해당하는 악장들의 조성과 박자의 배열, 성악과 기악의 편성 등이 노랫말의 구조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작곡자가 노랫말의 내용을 다양한 음악표현의 기법으로 음악의 구성개념들과 미시적, 거시적으로 결부시켰음을 시사한다.

또한 노랫말의 내용과 발음, 운율 및 리듬에 관한 음성학적인 현상이 음악의 개념과 결부된다(Lee, 2014). 예를 들어 한국어의 경우 모음의 길이가 음운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말/말>, <산토끼/산:토끼>와 같이 모음의 길이에 따라 의미를 달리하기도 하며, <적극적 압박>과 같이 무성파열음이 겹치는 낱말은 노래로 부르기 어려운 발음이므로 성악에서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ee, 2014). 모음의 장단과 한국어 음절의 특성은 음악적 지식 보다는 언어적 지식에 가까운 내용이므로 현재 학교음악교육의 실정에 맞게 한국어의 음성학적 특징과 음악의 연관성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다른 나라의 언어도 마찬가지로 언어와 음악이 각각 지닌 강세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마치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의미적인 오류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며, 듣는 이가 대단히 부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

Good e.g. 아 빠 가 죽 을 드 신 다
a bba ga juk eul d sin 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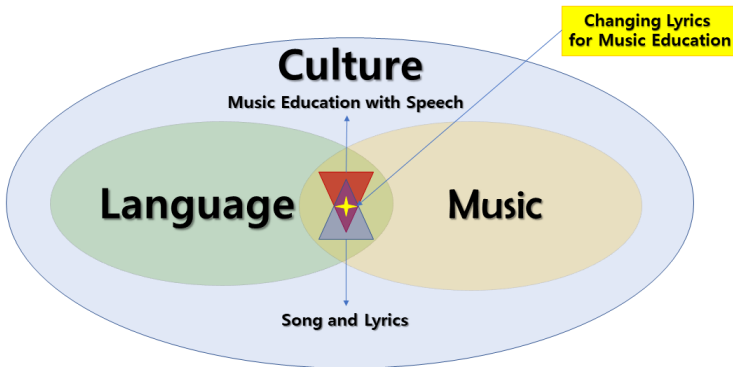
Wrong e.g. 아 빠 가 죽 을 드 신 다
a bba ga juk eul d sin da

Good e.g. 엄 마 는 서 울 시 어 머 니 합 창 단 -
um ma neun seo ul si eu meu ni hab chang dan -

Wrong e.g. 엄 마 는 서 - 울 시 어 머 니 합 창 단
um ma neun seo - ul si eu meu ni hab chang dan

[Figure 1] Good and wrong examples of match the accent of language and music

위에 제시된 악보는 띄어쓰기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한 학습동화책(Park, 2016)에서 발췌한 문장에 간단한 선율을 붙여 노래를 만든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의 노랫말에 두 개의 멜로디를 붙여 노랫말과 잘 어울리는 음악의 예와 그렇지 않은 예를 보여준다. 표시한 부분은 마디의 첫 박이자, 음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강세이다. 이 강세가 단어의 첫 시작 글자와 맞게 하는 것이 음악과 언어의 강세를 일치시키는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방식이다. 그런데 잘못된 예와 같이 노래를 부른다면, 청자는 ‘아빠 가죽을 드신다’, ‘엄마는 서울 시어머니 합창단’이라고 노랫말의 내용을 듣게 될 것이다. 이같이 음악과 언어는 다양한 형태로 결합되어 서로 불가분의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음악과 언어의 관계에서 나타난 음악교육의 일환으로서의 노랫말 바꾸기 활동을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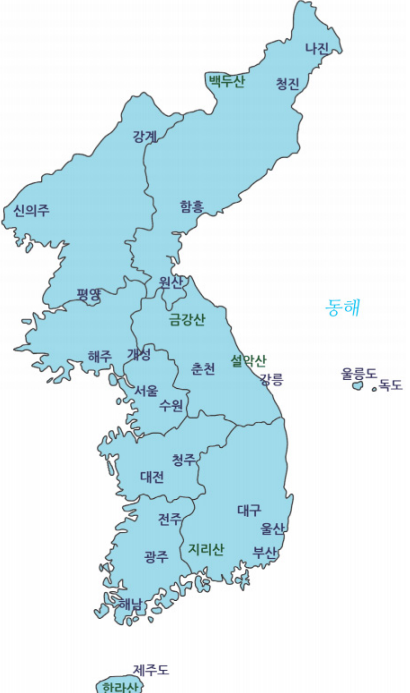
[Figure 2] Changing the lyrics within the contextual relationship between music and language

Ⅲ. 노랫말 바꾸기에서 음악개념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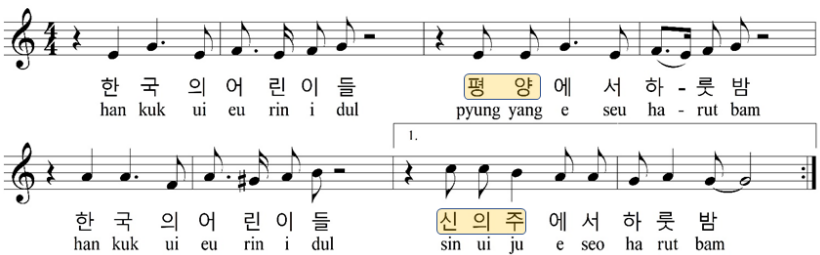
1.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에 나타난 관련 활동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선정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각 3종, 총 6종)에 수록된 노랫말 바꾸기 활동 지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째로, 교과서에 제시된 주제와 관련된 참고자료나 바꾼 노랫말의 예시가 주로 수록되어 있었다. 제시된 주제어와 관련된 단어들을 나열하거나,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주제어에 관한 노랫말을 떠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학습내용이 담겨있었다. 예를 들어, 반가를 만드는 경우 학급과 관련된 단어들을 제시하였으며, 여름 방학에 있었던 일로 노랫말을 바꾸는 경우 방학동안 재미있었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추억에 대한 질문들이 수록되어 있었다. 둘째로, 모듬 활동 및 발표, 평가 방법 등의 수업방식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모듬별로 노랫말의 소재를 정하여 노랫말을 만든 후, 질문과 응답의 형태로 발표한다.”와 같이 발표나 활동의 진행 방법을 언급하고 있었다. 아래에 제시한 표는 앞서 설명한 지도서의 두 가지 내용 구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아래에 제시된 악보는 《통일여행》(허미경 작곡, 이혜원 작사)에서 일부 발췌한 것으로, 활동내용은 악보에 표시한 부분의 노랫말만 바꾸는 것이다. 지도서에는 참고자료로서 지명이 적힌 지도가 제시되어있고, 개인 또는 모듬별 발표를 통해 바꾼 노랫말로 노래해보고, 노래를 들으며 인상 깊거나 재미있게 느낀 점을 이야기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Table 2> Contents of the tutorial for 《Travel for the national unification》(Kim et al., 2018, p. 359)

Reference for new lyrics	Tutorial for changing lyrics
	⚙ Change the Lyrics of the colored part  (to another place name). - Write the name of the area you want to travel to. - Sing a song with the lyrics of the changed area name. - Present freely individually or in groups. - Listen to the songs of your friends, and talk about what was impressive or interesting.

조금 빠르게 (Allegretto)



한 국 의 어 린 이 들 평 양 에 서 하 - 룯 밤
han kuk ui eu rin i dul pyung yang e seo ha - rut b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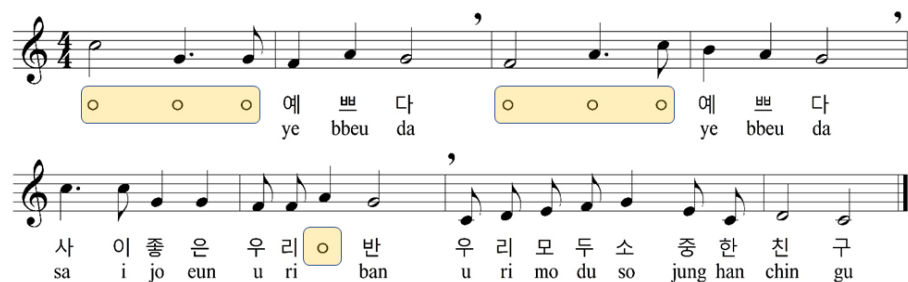
한 국 의 어 린 이 들 신 의 주 에 서 하 룯 밤
han kuk ui eu rin i dul sin ui ju e seo ha rut bam

[Figure 3] 《Travel for the national unification》, measure 1-8(Kim et al., 2018, p. 62)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도서의 내용 중 노랫말 바꾸기 활동을 지도할 때 고려해야할 음악개념이나 음악적 지식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선정된 교과서 전체에서 노랫말 바꾸기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음악적인 결과물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바꾼 노랫말로 계속해서 노래를 불러보고 어색한 부분은 수정한다.”, “모둠원이 함께

볼러보고, 어색한 부분은 수정한다.” 등 이다. 이에 대하여 교사와 학습자가 ‘어떤 음악적 기준을 가지고 바꾼 노랫말이 어색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본래 노랫말의 글자 수에 맞게 바꿀 것을 명시한 경우도 여럿이 있었다. 이는 해당 활동을 음악적 변화가 전혀 수반되지 않는 노랫말의 의미만 바꾸는 것으로 제한하게 된다. 즉, ‘음악’ 만들기 활동으로서 노랫말 바꾸기 활동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노랫말 바꾸기 활동의 종류는 짧은 단위의 동기(motive)나 악구(phrase)의 일부분만 바꾸는 유형과 한 악구(4마디) 이상의 노랫말 전체를 바꾸는 유형이 있었다. [Figure 4]와 같이 악구의 일부만 바꾸는 활동의 경우, 노랫말을 바꿀 수 있는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아래의 악보에 표시한 부분에 학기 초에 새로 만난 친구들의 이름으로 바꾸어 노래하는 것이 활동 내용의 전부다. 즉, 학생들이 제재곡의 음악적 특징이나 내용을 전혀 고려할 필요 없이 교과서에 제시된 주제어와 연관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단어만 바꾸면 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악곡 전체 또는 한 도막 이상의 노랫말 전체를 바꾸는 유형 역시 노랫말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나 전자의 유형보다는 상대적으로 긴 악구에 해당하는 노랫말을 만들게 된다. 악구가 길어질수록 해당 영역에 포함된 음악적 개념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노랫말의 선택 범위 역시 넓어지게 된다. 아래에 제시한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백창우 작곡, 이창희 작사)와 《작은 세상》(로버트 셔먼 작곡, 작사가 미상)은 두 가지 노랫말 바꾸기 유형의 예시이다.



[Figure 4] 《There are no flowers that aren't pretty》 (Cho et al., 2018(3rd.))

조금 빠르게 (Allegretto)

mf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
chin gu ya na neun neu reul sa rang hae chin gu ya na neun neo reul sa rang hae sa rang

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hae sa rang hae sa rang hae sa rang hae na neun neo reul sa rang hae

힘든 일도 많지만 두렵지가 않아요
him deun il do man ji man du ryup ji ga an a yo

함께 사는 이 세상 작고 아름다운 곳
ham ke sa neun i se sang jak go a reum da un got

[Figure 5] <<It's a small world>>(Kim et al., 2018, p. 50(4th))

음악개념 중심의 노랫말 바꾸기의 예로 [Figure 5]에 표시한 부분의 노랫말을 바꾸어보고자 해당 부분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면, 2마디로 이루어진 악구가 2도씩 음고 (pitch)를 높이며 3번 동형진행하며 음악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Figure 6) 악보 표시 참고). 이후 동형진행의 규칙을 일탈하며 앞서 6마디 4번째 박부터 8마디까지(‘나는 너를 사랑해’)의 선율이 재등장하여 악곡을 종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노랫말은 동형진행의 특징에 어울리면서도 음악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해소되는 것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대구를 이루면서도 그 내용이 점점 고조 되는 것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 아래의 악보는 이를 반영하여 [Figure 5]에 표시된 부분의

힘들 때 도 내 곁에 기쁠 때 도 내 곁에
him deul tte do ne gyut e gi bbul tte do ne gyut e

귀여운 내 친구 소중한 내 친구
gyui - yeo un ne chin gu so - jung han ne chin gu

앞으로 도 내 곁에 항상 너를 사랑해
ap eu ro do ne gyut e hang sang neo rul sa rang hae

사랑스런 내 친구 나는 너를 사랑해
sa rang s reon ne chin gu na neun neo reul sa rang hae

[Figure 6] 2 Examples of changing lyrics that match musical concepts no. 1

노랫말을 본래 교과서의 내용에 따라 ‘친구와의 우정’을 주제로 한 노랫말로 바꾼 두 개의 예시다. 이 예시는 동형진행에 맞춰 같은 구조의 노랫말이 세 번 반복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가 앞서 등장했던 노랫말이 재등장하며 긴장감이 해소되는 것을 보여준다.

2. 활용 가능한 음악개념

성악작품에서 음악과 노랫말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얹혀있다. 노랫말 바꾸기 활동의 경우 음악은 변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노랫말만 변화시키는 활동이다. 불변하는 요소인 음악에 가변적 요소로서 노랫말이 맞춰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랫말 바꾸기 활동에서 음악에 잘 어울리는 노랫말을 붙이기 위해서는 제재곡의 음악적 특징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사는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음악분석을 통해 제재곡에 어떤 음악개념이 사용되었으며, 그로 인해 나타나는 음악적 결과가 어떠한지 미리 숙지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 또한 제재곡에 담긴 음악개념과 음악적 특징의 이해를 선행한 후, 그에 어울리는 노랫말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3~4학년 음악교과서의 노랫말 바꾸기 활동에서 고려해야 할 음악개념들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지도시의 유의사항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 필수적 음악개념

필수적 음악개념은 음악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제재곡이 지닌 음악적 특징과는 별개로, 모든 노랫말 바꾸기 활동을 위해 학생과 교사가 우선적이고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고려해야 하는 음악개념을 의미한다.

(1) 악센트(Accent)

음악의 악센트는 세기(volume)의 변화나 음의 길이, 장식음 또는 음 높이의 변화 등에 의해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음을 일컫는다(Matthias, Grove music online). 악센트의 유형은 총 7개로, 연주자가 인위적으로 크게 연주하여 발생하는 강세 악센트(Dynamic Accent)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그 종류와 이름은 아래의 표에 제시하였다.

<Table 3> Types of accent(Jun, 2014, p. 67)

Item	Types of accent	Content	Occurrence method
1	Dynamic accent	An emphasis using louder sound	Artificial
2	Metric accent	The first beat of the measure	Natural
3	Harmonic accent	Dissonant harmonies	
4	Agogic accent	A lengthening of duration	
5	Embellished accent	Ornament note	
6	Pitch accent	Disjunct motion by large intervals	
7	Pattern accent	The first note of the music pattern	

노랫말을 음악의 특징과 어울리게 바꾸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이 바로 악센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악과 언어의 강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노랫말의 의미가 잘못 전달되거나 청자로 하여금 어색함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박절적 악센트는 거의 모든 음악 전반에 내재되어 있는 음악적 개념으로, 노랫말 바꾸기 수업에서 반드시 이해되어야 하는 필수 개념이다. 따라서 노랫말을 바꿔 보기 전에 제재곡을 노래하며 마디의 첫 박에 박수를 치거나 작은 타악기를 연주하는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제재곡의 박절적 악센트를 느끼고 인지하는 것을 선행해야한다. 기본적으로 제재곡의 ‘강박’과 노랫말이 언어로서 가지는 ‘강세’가 서로 일치하게 노랫말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제재곡이 지닌 박자의 강박에 단어나 문장의 첫 글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못갓춘마디로 시작하는 제재곡 역시 아래에 제시된 예시 《생일 축하 노래》(밀드레드 힐 & 패티 힐 작곡)와 같이 마디의 첫 박에 강세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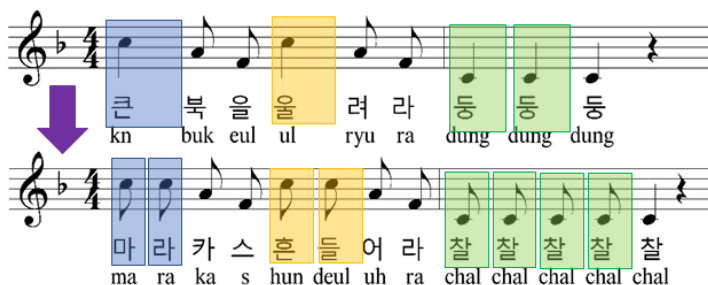


[Figure 7] Example of starting a phrase with an upbeat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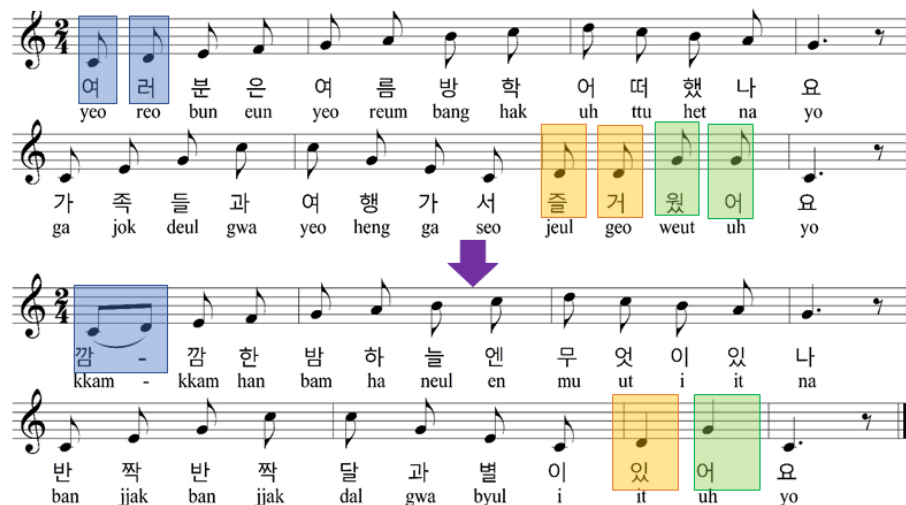
(2) 리듬(Rhythm)

노랫말 바꾸기 활동에서 반드시 다뤄야할 또 하나의 음악개념은 바로 음의 길고 짧음을 의미하는 리듬이다. 학생들이 노랫말을 바꾸는 과정에서 원곡의 노랫말과 글자 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글자 수가 늘어날 경우 해당 음의 리듬이 분할되

고, 글자 수가 줄어들 경우 해당 음의 리듬이 병합되거나 하나의 음절이 여러 음에 걸쳐 등장하는 멜리스마(melisma)³⁾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Figure 8][Figure 9]. 노랫말 글자 수에 의해 제재곡의 리듬이 변하는 것은 이후에 해당 부분의 선율을 바꿔보는 심화된 활동으로도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리듬 분할의 경우 3·4학년의 음악적 지식과 수준을 고려해볼 때, [Figure 8]과 같이 주어진 박자 내에서 교사가 분할하는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Figure 8] Example of rhythm split



[Figure 9] Example of rhythm merge & melisma

3) 멜리스마는 원칙적으로 5~6개 이상의 음을 하나의 음절로 노래 부르는 것(Richard, L., Grove Music Online)을 일컬으나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음절이 여러 개의 음에 걸쳐 나타나는 형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언급하였다.

2) 선택적 음악개념

선택적 음악개념은 음악분석을 통해 주어진 제재곡에서 두드러게 나타나는 음악적 특징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재곡별로 고려해야할 개념과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아래에서 현 교과서의 노랫말 바꾸기 활동에 제시된 제재곡에서는 어떤 음악개념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 음악개념을 어떻게 노랫말과 연관 지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1) 형식과 조성, 셈여림과 아티큘레이션(Form & Key, Dynamic & Articulation)

아래에 제시된 동요 《아기염소》(이순형 작곡, 이해별 작사)는 ABA형식의 악곡으로 B부분에서는 원조인 바장조(F Major)와 같은 으뜸음조 관계에 있는 바단조(f minor)로 전조된다. 원곡의 노랫말은 이러한 악곡의 형식과 조성변화라는 음악개념을 모두 고려하여 A부분에 해당하는 노랫말에는 아기염소가 맑은 날씨에 뛰어 노는 모습을 표현하고, B부분에 해당하는 노랫말은 비가 오는 날씨에 엄마염소와 아빠염소를 잃어버린 아기염소를 표현하여, A부분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2015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학년군별 음악개념과 개념 체계표에 따르면 3~4학년 군에서는 장음계와 단음계를 다루지 않지만(Ministry of Education, 2015), 지도서에서는 제재곡의 처음부분과 뒷부분에서 달라지는 분위기와 느낌을 이야기하며, ‘처음엔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다가 중간에 어둡고 쓸쓸한 분위기가 된 후, 다시 밝고 경쾌하게 끝나요’라고 언급하며 조성변화가 주는 악곡의 분위기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장음계와 단음계를 이론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조성변화에 따른 악곡의 분위기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조성변화가 있는 악곡의 노랫말을 바꾸는 경우 그에 따른 음악적 분위기 변화를 반영하여 노랫말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B부분에서는 작게 시작하여 점차 커지는 셈여림의 변화를 수반하며 악곡의 절정(climax)으로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노랫말 역시 그러한 분위기의 고조를 반영하여 상황이 점진적으로 긴장된 내용을 담고, 강세 악센트가 붙은 음에서는 다른 악구들보다 중요하거나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넣을 수 있다.

조금 빠르게 (Allgretto)

A

mf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pa ran ha neul pa ran ha neul kkum i deu ri un py reon eon deok e

B

mf

아기 염소 여럿이 풀을 뜯고 놀아요 해처럼 밝은 얼굴로
 a gi yum so yeo reot i pul eul ttut go nol a yo hae cheo rum bark eun ul kul ro

f

빗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 날에는 잔뜩 찡그린 얼굴로
 bit bang ul i ttuk ttuk ttuk tteol uh ji neun nal e neun jan ttuk zzing geu rin eul gul ro

A'

mf

엄마 찾아 음-매 아빠 찾아 음-매 울상을 짓다가
 um ma cha ja um - mae a bba cha ja um - mae ul sang eul jit da ga

해가 반짝 곱게 피어나면 너무나 기다렸나봐
 hae ga ban zzak gob ge pi uh na myun neo mu na gi da ryut na bwoa

폴짝폴짝 콩콩콩 흔들흔들콩콩콩 신나는 아기 염소들
 por zzak por zzak kong kong kong heun deul heun deul kong kong kong sin na neun a gi yeom so deul

[Figure 10] 《Baby goat》, (Kim et al., 2018, p. 38(4th.))

<Table 4> Change the lyrics of the marked part() in 《Baby goat》

Musical concepts	Expressing with lyrics
Structure and key	- The content of the lyrics in Part A and Part B should be contrasting. - The content of the lyrics should match the compositional change from major (bright atmosphere) to minor (dark atmosphere) and minor to major
Dynamic and articulation	- The content of the lyrics should express the gradual change in volume that appears in Part B - In Dynamic accents(>), the lyrics of what students want to emphasize specially should be written.

아래의 예시는 앞서 설명한 형식과 조성, 셈여림과 아티큘레이션의 개념을 고려하여 [Figure 10]에 표시한 부분의 노랫말을 바꾸어본 것이다. 먼저, 원곡에서 바뀌지 않는 노랫말로 인해 표시한 부분의 노랫말은 한정적 범위 안에서 선택해야 했다. 첫째로 ‘풀을 뜯고 놀아요’라는 노랫말로 인해 초식동물을 연상하게 했으며, ‘해가 반짝 곱게 피어나면 너무나 기다렸나봐’라는 가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B 부분에서 ‘해’에 대한 부재의 상황이면서도 A부분의 가사와 대조를 이루는 분위기와 내용을 담아야 하므로, 날씨의 변화나 해가 진 저녁 또는 밤에 관련된 노랫말이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예시에서는 해가 저서 어두운 상황과 더불어 토끼의 생명을 위협하는 늑대와 사

자를 등장시켜 셈여림이 점차 커지고 음악이 절정으로 향해가는 긴장감의 고조를 노랫말로 표현하였다. 강세 악센트가 있는 음들은 한음절로 이어 부를 수 없으므로 교사가 학생들이 만든 노랫말에 따라 아래에 제시한 것과 같이 변경해 줄 수 있다.

아 기 토 끼 여 릿 이 풀 을 뜯 고 놀 아 요 해 처 럼 밝 은 얼 굴 로
a gi to kki yeo reot i pul eul ttut go nol a yo hae cheo rum bark eun ul kul ro

햇 님 이 집 에 가 고 어 둑 어 둑 해 지 면 숲 속 은 위 험 해 저
het nim i jib e ga go uh duk uh duk hae ji myun sup sok eun we heom hae jyu

늑 대 가 이 쪽 에 사 자 가 저 쪽 에 너 무 너 무 무 서 워
neuk dae ga i zzok e sa ja ga jeo zzok e neu mu neu mu mu seo wou

해 가 반 짝 곱 게 피 어 나 면 너 무 나 기 다 렸 나 봐
hae ga ban zzak gob ge pi uh na myun neo mu na gi da ryut na bwoa

강 충 강 충 통 통 통 이 리 저 리 통 통 통 신 나 는 아 기 토 끼 들
kkang chong khang chong tong tong tong i ri jeo ri tong tong tong sin na neun a gi to kki deul

풀 짝
por zzak

풀 짝
por zzak

[Figure 11] Examples of changing lyrics that match musical concepts no. 2

(2) 음색(Timbre)

음색을 중심 음악개념으로 다루는 노랫말 바꾸기 활동은 제재곡이 본래 지닌 노랫말이 악기의 음색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국악기의 소리를 언어로 적는 구음과 같은 방식으로, 악기의 음색이나 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을 노랫말로 묘사해보는 것이다. 아래에 제시한 《리듬 악기 노래》(이계석 작사. 작곡)는 노랫말이 악기의 음색을 언어로 표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과서에서는 이 제재곡에 관련한 활동으로 노래와 함께 리듬악기로 합주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교과서에는 없지만 지도서의 내용에 따르면 다양한 리듬 악기들을 연주 해 보고, 소리의 크기와 울림을 비교 해보고 난 후 리듬악기 소리를 흉내 낸 노랫말로 바꾸어 부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지도서에만 노랫말 바꾸기 활동에 관해 언급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노랫말을 바꾸라고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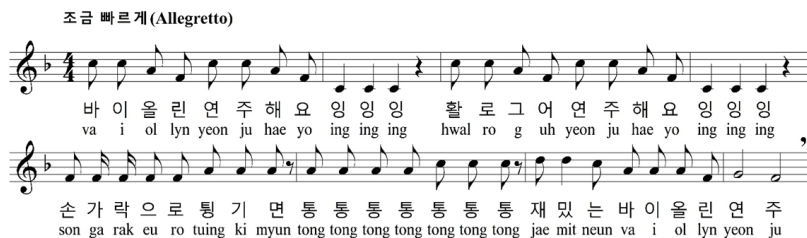
[Figure 12] 《Rhythm instrument song》, measure 1-8 (Seok et al., 2018, p. 38(3rd.))

악기의 음색을 노랫말로 표현한 또 다른 제재곡의 예시를 살펴보겠다. 아래에 제시된 《당둥둥징》(김은경 작사·작곡, 허미경 편곡)은 본래 노랫말이 국악기의 음색을 언어로 표현한 구음이다. 교과서에는 이 제재곡에 관련하여 아래에 표시한 부분의 노랫말을 다른 악기의 음색을 표현한 내용으로 바꾸어보고 바꾼 악기의 연주동작을 신체로 표현하는 활동이 삽화로 제시되어 있다. 지도서에는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와 악기의 소리를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고, 아래의 악보에 표시한 부분의 노랫말을 다른 악기에 관한 것으로 바꾸어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도서의 내용은 교과서의 삽화에 제시된 것과 같은 악기 및 노랫말로 구성되어있어 교사가 새로운 활동을 추가 하지 않는다면 이미 제시된 노랫말로 바꾸어 노래하는 정도의 활동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



[Figure 13] 《Dangdungdongjing》, measure 1-8 (Kim et al., 2018, p. 60(3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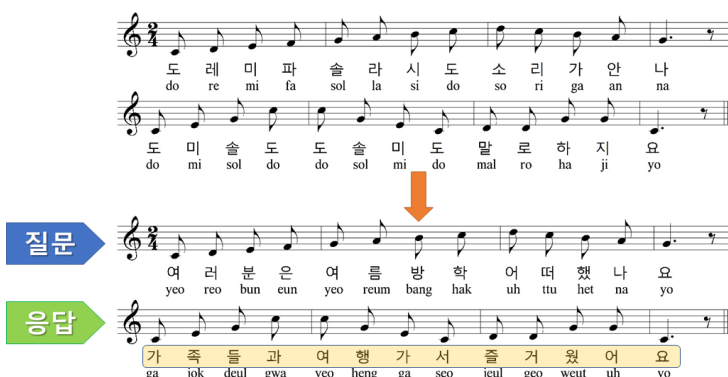
이와 같이 노랫말 바꾸기를 통해 다른 악기의 음색을 언어로 표현해보는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악기가 만들어내는 음색을 집중하여 듣고,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해볼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표현이나 같은 악기더라도 다양한 연주 기법에 의해 달라지는 음색, 악기를 직접 연주하거나 탐색해보고, 악기가 아닌 다른 물체를 통해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보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등의 방법도 있을 것이다. 아래에 제시한 악보는 [Figure 12]의 선율의 노랫말을 바꾼 것으로, 같은 악기이지만 연주기법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 음색을 노랫말에 담은 예시다.



[Figure 14] Examples of changing lyrics that match musical concepts no. 3

(3) 종지(Cadence), 차례가기와 뛰어가기(Conjunct motion & Disjunct motion)

위에 제시된 악보는 《옥수수 하모니카》(홍난파 작곡, 윤석중 작사)의 일부분으로, 음의 진행이 첫 4마디는 차례가기 나머지 4마디는 뛰어가기로 명확히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과서에는 ‘노랫말을 바꾸어 친구와 묻고 답하며 즐겁게 노래 불러 봅시다.’ 라고 제시하는데, 이는 음의 진행이 지닌 특징을 잘 반영한 노랫말 바꾸기 활동의 예로 볼 수 있다. 또한 질문과 응답의 형태는 4번째 마디에서 나타나는 반종지와 8번째 마디에서 나타나는 정격종지가 주는 음악적 느낌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딸림화음(V)으로 마치는 첫 번째 악구의 경우, 악구가 끝나더라도 청자는 다음 음악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고, 딸림화음(V)- 으뜸화음(I)으로 마치는 두 번째 악구의 경우, 청자는 더 이상 음악이 이어지지 않고 끝맺음을 하는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교사는 이 활동을 지도할 때, 본 제재곡의 음악적 특징인 ‘차례가기와 뛰어가기로 명확히 악구가 구분되는 점과 악구의 끝맺음인 두 개의 종지가 주는 서로 다른 느낌’을 노랫말로 표현하고자 ‘질문과 응답’의 형태를 지닌다는 것을 확실히 언급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과 노랫말의 연관성을 인지하고 표현하도록 해야 한다.



[Figure 15] 《Corn harmonica》, measure 17-24 (Seok et al., 2018, p. 52(3rd.))

3. 노랫말 바꾸기 수업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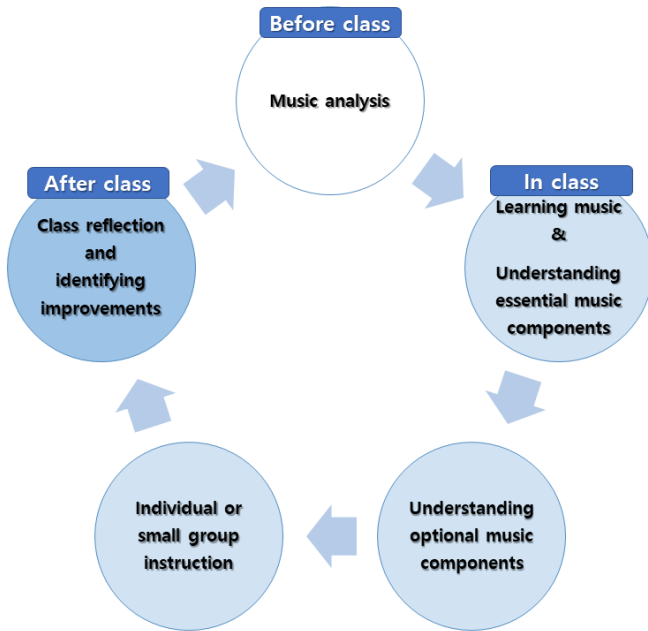
교사의 관점에서 설계한 노랫말 바꾸기 수업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업을 진행하기 전 교사는 노랫말 바꾸기 활동을 매개로 학생들이 어떤 음악적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수업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는 제재곡을 분석하여 형식과 그에 따른 조성 변화, 눈에 띄는 음의 진행이나 리듬 등의 음악적 특징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음악적 특징이 교과서에 제시된 노랫말 바꾸기 활동의 주제어와 잘 결부 될 수 있는지, 결부된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음악적 특징과 노랫말 만들기 활동 주제어 사이의 연관성이 적거나 없는 경우는 교사의 재량으로 활동내용에 음악적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수업이 시작되면 감상과 가창 등의 활동을 통해 노래를 충분히 익히고 본격적인 노랫말 바꾸기 활동을 시작하기 전, 앞서 필수적 음악개념에 대한 지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때, 음악개념의 학습이 단순한 이론과 지식 전달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가창학습(Hong, 2013)을 통해 학생들이 제재곡과 그에 사용된 음악개념을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마디의 첫 박에 신체표현, 신체타악기, 작은 타악기 등을 연주하면서 학생들이 박절적 악센트를 충분히 인지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사가 먼저 시범적으로 노랫말 바꾸기 과정을 보여주며 나타나는 리듬의 분할과 병합의 예를 보여줌으로써 ‘하나의 음에 한 글자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편견을 깰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여러 개의 음을 한 글자로 노래하는 멜리스마 형태의 선율도 예도 함께 선보인다.

이어서 앞서 선택적 음악개념으로 소개했던 제재곡이 지닌 음악적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그 특징을 어떻게 노랫말로 표현하고 연관 지으면 좋을지 상의해본다. 이때, 제재곡의 노랫말 대신 ‘라라라’, ‘루루루’와 같이 의미 없는 언어로 대체해 불러 보면서, 노랫말이 없는 음악 자체의 특징에 집중해보고,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제재곡 이외에 다른 악곡에서 음악적 특징과 노랫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 짓고 있는지 보여주어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개념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주어진 예시를 기반으로 현 제재곡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선택적 음악개념의 지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모둠 또는 개인으로 노랫말 바꾸기 활동을 진행한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의 음악 창작물을 개별적 또는 소그룹 단위로 검토해주며 학생별 상황과 수준에 맞는 조언을 통해 앞서 익힌 음악개념의 완전한 이해를 돕는다. 더불어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학생들이 만든 노랫말로 새롭게 노래를 부르고 소감을 나눌 때 역시, 간단히 ‘음악을 듣고 느낀점’ 이라기보다는 창작한 학생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노랫말을 만들고 바꾸었는지 발표해보고, 수업의 마무리에는 교사가 발표내용을 정리해주며, 같은 음악적 특징을 학생마다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는지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이후 교사가 수업을 성찰하며 진행 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노랫말 바꾸기 수업에 적용하거나 개선할 점을 정리하는 것에도 도움을 준다.



[Figure 16] Instructional procedure diagram

위에서 설명한 수업 절차를 제재곡 《안녕》(프랑스 동요, 박화목 작사)에 적용한 노랫말 바꾸기 활동 내용을 예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은 위 악곡 전체의 노랫말을 ‘음악시간에 지킬 약속’에 관한 내용으로 바꾸는 활동이다. 이에 대해 지도서에는 ‘모둠별로 노랫말을 바꾸어보고, 바꾼 노랫말로 불러 본 뒤 어색한 부분은 수정한다.’라는 간략한 지도내용이 제시되어있다.



[Figure 17] 《Hello》 (Seok et al., 2018, p. 11(3rd.))

이 제재곡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음악적 특징은 같은 악구가 두 번씩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원곡의 노랫말은 프랑스 동요로 아침 종을 울려야 하는 수도사를 깨우는 내용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Are you sleep ing?’이라는 제목의 영어 동요로 더 친숙한 노래이기도 하다.

보통 빠르게 (Moderato)

[Figure 18] 《Are you sleeping?》

영어 노랫말의 경우 [Figure 18]에 제시된 것과 같이 같은 악구가 두 번씩 반복되는 것에 맞춰 노랫말도 같은 형태로 반복된다. 원곡인 프랑스 동요의 노랫말 역시 음악의 구조에 맞춰 반복된다. 그러므로 아래에 제시한 예시에서도 노랫말과 음악의 구조를 통일시킬 수 있도록 음악시간에 지켜야 할 약속으로는 같은 선율에 같은 노랫말을 넣어보고, 음악시간에 새롭게 만난 친구와 인사하는 내용으로 두 친구가 서로 대화하는 형태이면서 그 구조가 서로 대구를 이루도록 하였다. 이러한 활동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원곡을 예로 들어 보여주는 것이 좋다. 더불어 발표할 때의 연주방법을 두 사람 혹은 두 그룹이 짝을 지어 반복되는 악구를 나누어 부르는 방식을 취하여, 같은 악구를 소리 내어 불러봄과 동시에 내가 부른 것과 같은 악구를 들어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다. 이와 같이 교사는 음악 분석을 통해 제재곡에 사용된 음악개념을 파악하고, 어떻게 이를 노랫말 바꾸기 활동과 연관 지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필요한 경우 교사의 재량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

보통 빠르게 (Moderato)

Original Lyrics	Modified Lyrics
안녕 an nyung	안녕 an nyung
반가워 ban ga wou	반가워 ban ga wou
악기 연주하자 ak gi yeon ju ha ja	노래 불러보자 no re bul reo bo ja
빠라밤 bba ra bam	랄랄라 lal lal la

[Figure 19] Examples of changing lyrics that match musical concepts no. 4

보통 빠르게 (Moderato)

Original Lyrics	Modified Lyrics
음악시간 um ak si gan	음악시간 um ak si gan
즐겁게 jeul geo wou	즐겁게 jeul geo wou
떠들면 안돼 ttu - deul myun an doe	떠들면 안돼 ttu - deul myun an doe
집중해 jip jung hae	집중해 jip jung hae

[Figure 20] Examples of changing lyrics that match musical concepts no. 5

IV.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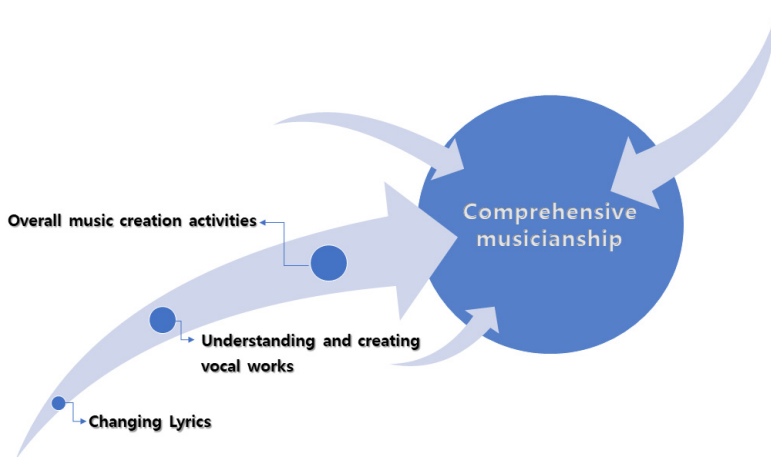
지금까지 2015개정 초등학교 3~4학년 음악교과서와 지도서에서 음악 만들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랫말 바꾸기 활동의 지도내용을 분석하고, 해당 활동에서 고려해야 할 음악개념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여러 학자가 정의한 음악 만들기의 개념을 살펴본 결과 음악 창작의 과정 및 결과에는 실제 음악적 기술의 사용과 더불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내재되어야 함을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었다. 이를 노랫말 만들기 수업에서의 교사 역할에 대입해보면 먼저, 교사에게는 노랫말과 제재곡이 지닌 음악개념을 유기적으로 연관 지을 수 있는 음악적 기술 함양이 요구됨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교사는 제재곡에 나타난 음악개념과 그의 실제 활용된 양상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언어라는 비음악적 개념과 결부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는 노랫말 바꾸기에 제시된 주제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사에 맞게 의사소통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은 창의적인 표현을 끌어낼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허용적인 수업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노랫말 바꾸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음악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필수적 음악개념인 악센트와 리듬은 모든 노랫말 바꾸기 활동에 포함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음악에 기본적으로 내재된 박절적 악센트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에 어울리게 언어의 강세를 맞추어야 한다. 또한 노랫말을 바꿀 때 글자 수가 상이한 경우 리듬의 분할, 병합 또는 여러 개의 음을 하나의 음절로 노래하는 멜리스마기법의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선택적 음악개념은 제재곡마다 개별적으로 지닌 특징적인 음악개념(형식과 조성, 셈여림과 아티큘레이션, 음색, 종지, 차례가기와 뛰어가기 등)을 의미하며, 학생들이 이를 발견 및 이해하여 노랫말을 바꾸는 과정에서 내용적, 언어적 특징에 어울리게 적용할 수 있다.

노랫말은 다양한 형태로 음악 내외의 요소들과 연관되고 통합학습을 가능하게 한다(Kim, 2012). 본 연구를 통해 노랫말 바꾸기는 포괄적 음악성의 관점에서 언어라는 비음악적 개념을 활용하여 음악개념의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음악 만들기 활동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노랫말을 통한 음악개념 중심의 음악 만들기는 창의·융합 사고 역량 함량을 위해 2015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 [4음01-03]에 관한 세부 설명과 예시(Yu & Kwon, 2019)로서 제안할 수 있다. 다양한 음악 만들기 활동 중에서 비교적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노랫말 바꾸기가 가장활동의 일부가 아닌 보다 심화적인 수준의 활동인 작곡이나 즉흥연주 등, 특히 언어와 어우러지는 성악작

품의 음악 만들기로 연계될 수 있는 스캐폴딩의 역할이 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포괄적 음악성 함양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Figure 21] Hypothetical model for the association between the changing lyrics and the comprehensive musicianship

또한 리듬꼴 바꾸기, 가락 짓기 등의 다른 음악 만들기 활동에서도 음악개념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음악교과를 통해 음악 외적인 역량까지 포괄적으로 함양하고자 하는 교육방향의 취지는 좋으나 그로 인해 음악을 실제적으로 배우고 다루는 내용이 등한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음악교과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음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음악적 개념의 이해와 적용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Reference

- Berkley, R. (2001). Why is teaching composing so challenging? A survey of classroom observation and teachers' opinion. *British Journal of Music Education*, 18(2), 119-138.
- _____. (2004). Teaching composing as creative problem solving: Conceptualising composing pedagogy. *British Journal of Music Education*, 21(3), 239-263.
- Byun, M. H. (2011). A study on mal-butchimsae for the approaches to Korean music. *The Journal of Korean Music Education Research*, 5(1), 101-125.

- Chung, J. W. (2019). Qualitative inquiry on elementary teacher's perception and practice of classroom instruction for music making. *The Journal of Future Music Education*, 4(1), 111-143.
- Cho, S. I., Ju, D. C., Kang, J. W., Kim, H. S., Kim, E. J., Lee, G. S., Kim, S. A., Jung, I. J., Han, S. M., Chae, S. H., & Byun, I. J. (2018). *Music textbooks for grade 3-4*. Seoul: Visang.
- Choi, E. S., & Oh, J. H. (2016). A proposal for music creation classes based on the creative thinking process. *Teacher Education Research*, 55(2), 214-226.
- Choi, E. S., & Shin, H. K. (2015). A development of an instructional model for nurturing music creativit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4(4), 261-281.
- Ham, H. J. (2018). An analytical study on creative activities contained third and fourth grade elementary school music textbooks. *The Journal of Future Music Education*, 16(2), 7-27.
- Hong, S. Y. (2012). A preliminary study on instructional methods of singing activities based on Gordon's music learning theory: Concentrated on the 3rd grade in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Ewha Music Research Institute*, 3(2), 111-129.
- Hong, S. Y. (2013). Creativity in music education: An investiga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understanding - Concentrated on Gwangju and Chonnam provinc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2(3), 357-385.
- Jun, S. J. (2014). *The principle of music*.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im, N. R., Lee, H. H., & Kim, H. W. (2015). The relationship among the elementary student's perceived class method, teacher characteristics, class atmosphere and creativity. *Korean Society for Creativity Education*, 15(2), 17-31.
- Kim, E. J. (2020). Analysis of hierarchy of 'music elements and concepts' in elementary music textbooks according to the 2015 revised music curriculum.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3(2), 127-155.
- Kim, G. S. (2012). A study on the educational use of creative rap as character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1(3), 27-47.
- Kim, H. J. (2013). The types of word buchimsae for Jangdan of folksongs and the measures for education. *The Society of Korean Folk Song*, 37(4), 39-67.
- Kim, S. B. (2011). The interaction of music and text in Liszt's Lied O Lieb: An analytical study based on the conceptual blending theory and Schenkerian theory. *Journal of the Musicological Society of Korea*, 14(3), 213-248.

- Kim, S. K. (2018). Analysis of creative activities in the third and fourth grade music textbooks in elementary school under the 2015 curriculum. *The Journal of Music Application Studies*, 10, 47-78.
- Kim, S. K., & Bae, S. Y. (2019). A study on the educational use of creative rap as character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4), 49-69.
- Kim, Y. H., Hyun, G. S., Heo, M. G., Kim, D. S., Lee, M. Y., Lee, J. Y., & Lee, C. M (2018). *Music textbooks for grade 3-4*. Seoul: Kumsung.
- Ko, J. M., & Lee, Y. K. (2014). The teaching approach utilizing speech rhythm in music instruction. *Research in Music Pedagogy*, 19(2), 1-30.
- Lee, H. B. (2014). A phonetic review on the rhythm of songs and lyrics-Korean songs must be dressed in Korean clothes-. *Annual report of professors emeriti Seoul National University*, 10, 203-208.
- Matthias, T. (2020). 'Accent' in *Grove music online, Oxford music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accessed December 13.
- Ministry of Education (2015). *Music curriculum*. No. 2015-74.
- Moon, O. B. (1990). Music and linguistics. *The Journal of Music Application Studies*, 8, 127-154.
- Na, J. G. (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music and text in Bach's Magnificat in D Major. *The Music Research Center*, 26(2), 1-19.
- Odena, O., & Welch, G. (2009). A generative model of teachers' thinking on musical creativity. *Psychology of Music*, 37(4), 416-442.
- Park, C. H. (2015). Analysis of Mal-butchimsae creative activity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3rd and 4th grade music authorized text book of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Masters dissert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cheon, Korea.
- Park, J. H. (2011). A study on the teaching-learning process and method of musical cre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0(2), 5-18.
- Park, J. H., & Yang, I. S. (2016). A instructional model for music making activities applying project learning.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5(2), 149-168.
- Park, J. M. (2014).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a creation activity of Mal-Butchimsae in elementary Korean traditional music. *Society For Korean Music Educator's*, 37, 57-82.

- Park, G. B. (2016). *Why should I use spaces?*. Seoul: Gilbutkid.
- Pilsbury, C., & Alston, P. (1996). Too fine a net to catch the fish? An investigation of the assessment of composition in GCSE music. *British Journal of Music Education*, 13(3), 243-258.
- Richard, L. (2020). 'Melisma' in *Grove music online, Oxford music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accessed December 13, 2020.
- Rim, M. K., Hyun, G. S., Cho, S. I., Kim, Y. H., & Lee, E. (2010). *Teaching music*. Seoul: Hakjisa.
- Seok, M. J., Choi, M. Y., Kim, Y. J., Choi, Y. R., Jang, E. S., & Jung, J. H. (2018). *Music textbooks for grade 3-4*. Seoul: Dong-A.
- Seung, Y. H., Min, G. H., Yang, J. M., & Chung, J. W. (2013). *Music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Seoul: Hakjisa.
- Shamrock, M. (1986). Orff Schulwerk: An integrated foundation. *Music Educators Journal*, 72(6), 51-55.
- Shin, H. K. (2019). Analysis of music-creating activitie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music textbooks based on 2015 national curriculu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 691-710.
- Webster, P. R. (1990). Creativity as creative thinking. *Music Educators Journal*, 76(9), 22-28.
- Yu, G. H., & Kwon, S. M. (2020). Analysis of competence in musical creativity and convergence thinking applied to 2015 3-4 grade music textbooks. *The Musicological Society of Korea*, 28(1), 73-104.
- Yun, G. K. (2018). A study on teaching method of children's song for develop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character and moralit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7(4), 107-128.
- Zbikowski, L. M. (2002). *Conceptualizing music: Cognitive structure, theory, and analysi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Zhang, L., Xie, S., Li, Y., Shu, H., & Zhang, Y. (2020). Perception of musical melody and rhythm as influenced by native language experience.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s*, 147(5), EL385-EL390.